

정정훈 촬영감독 “티모시가 매일 안아줬어요”

영화 ‘윙카’서 티모시 살라메 호흡 맞춰
“각도 따라 수천 가지 표정 오묘한 배우”
2013년 ‘신세계’ 후 할리우드 최초 진출

박찬욱 감독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 혹은 한국영화에 깊은 관심을 가진 관객에게 이름은 그리 낯설지 않다. ‘올드보이’ ‘박쥐’ ‘아가씨’ 등 박 감독이 연출한 거의 모든 작품에 참여했고, ‘부당거래’ ‘신세계’ 등을 함께한 정정훈(54) 촬영감독이다.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봉준호에게 흥행표가 있다면, 박찬욱에게 정정훈이 있다.’

정 촬영감독에게 ‘박찬욱의 파트너’라는 별명 외에 별칭이 하나 더 있다. 할리우드로 간 첫 번째 한국 촬영감독. 2013년 ‘신세계’를 끝낸 정 촬영감독은 무작정 할리우드로 갔다. 박 감독과 함께 미국에서 ‘스토커’를 찍은 게 정 촬영감독의 할리우드 커리어 시작이었다. 이후 수 년 간 주로 소규모 영화에서 일을 한 그는 2017년 호러영화 ‘그것’에 참여하며 미국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 작품이 전 세계에서 7억 달러 넘게 벌어들이며 크게 성공하자 정 촬영감독에게도 하나 둘 더 좋은 기회가 생기기 시작했다.

할리우드에 진출한지 10년째 되는 해만 나게 된 새 영화 ‘윙카’(1월31일 공개)는 정 촬영감독 이력에 특기할 만한 작품이다. 이 영화는 현재 할리우드에서 가장 뜨거운 배우인 티모시 살라메가 주연을 맡은데다가 ‘패딩턴’ 시리즈로 잘 알려진 폴 킴 감독이 연출했고, 영국 작가 모알드 달의 대표작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원작이다. 아마도 ‘윙카’는 정 촬영감독이 최근 참여한 어떤 영화보다 유명한 작품일 것이다.

정 촬영감독을 23일 화상 인터뷰로 만났다. 그는 “아직도 영국에서 원작 소설을 아이들이 잘 때 많이들 읽어준다고 하더라”며

“시나리오를 두고 고민하고 있을 때, ‘언차티드’를 함께한 루벤 플러셔 감독이 내 말을 위해서라도 꼭 해달라’고 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영화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었다”고 말했다.

‘윙카’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 주인공 ‘윙키 윙카’의 젊은 시절을 그린다. 배우 조니 뎀이 주연한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2005)이 원작 소설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작품이라면 ‘윙카’는 원작 캐릭터를 모티브 삼아 만들어 낸 사실상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다. 다만 윙키 윙카가 단순히 맛있는 초콜릿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먹으면 하늘을 날 수 있는 초콜릿 등 기상천외한 제품을 만드는 인물인만큼 ‘윙카’ 역시 원작의 판타지적인 요소로 가득하다. 여기에 뮤지컬 영화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음악과 춤이 함께하는 영화이기도 하다.

“물론 환상적인 느낌을 살리는 건 중요했습니다. 그런 영화이니까요. 하지만 과하게 영화적인 느낌을 내고 싶진 않았어요. 촬영이라는 건 인물과 어울려야 하고, 스토리와 어울려야 하잖아요. 촬영이라는 건 제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영화와 어울려야 하고 이야기를 최대한 잘 전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 감독은 모든 장면을 공들여 찍었기 때문에 가장 신경 쓴 장면을 하나만 꼽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신 가장 좋아하는 장면을 골랐다. 윙키 윙카가 첫 번째 초콜릿 가게를 여는 장면이다. 그는 “그 시퀀스에서 윙카의 모든 걸 볼 수 있다. 그의 인생까지도”라고 했다. “영화 내내 나오는 초콜릿 대부분은 진짜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당연히 저도 먹어봤죠. 정말 맛있더라고요.(웃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기념으로 소품용 초콜릿을 하나 챙겨 놓아야 했는데, 그냥 먹기만 했어요.(웃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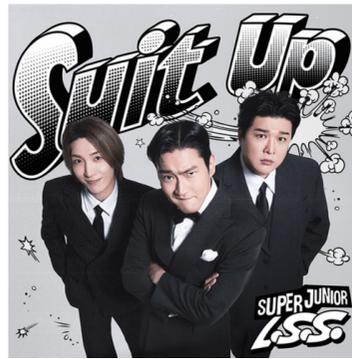
이 영화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윙키 윙카를 연기한 배우 티모시 살라메다. 한 마디로 그는 대체다. 아름다운 외모에 빼어난 연기력도 갖췄고, 그가 출연하는 작품은 예외 없이 흥행에 성공한다. ‘윙카’는 북미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선 지난 12월에 공개됐는데,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현재 5억3300만 달러(약 7100억원)에 달한다.

정 촬영감독은 살라메에 대해 “어느 각도에서 촬영하느냐에 따라 수천 가지 표정이 나오는 오묘한 배우”라고 했다. “티모시는 그냥 찍어도 마치 촬영을 잘한 것처럼 납니다. 그러니까 전 운이 좋은 거죠.(웃음) 그런 배우를 찍을 수 있었던 행운이었어요. 티모시 연기요? 전 다 좋던데요.”

정 촬영감독은 살라메와 함께 작업하게 된 뒤 지인들에게 큰 부러움을 샀다고 했다. 중

중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티모시가 날 안아줬다”며 장난 치듯 자랑을 하기도 했다. “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배우와 일한다는 게 저에게는 참 현실감이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티모시는 제가 지금까지 만나 본 배우 중에 가장 달달한 배우였어요. 끊임 없이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연기하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핫한 배우라는 건 그저 잘생겼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정 촬영감독은 작년에 미국 촬영감독협회(American Society Of Cinematographers·ASC) 정식 회원이 됐다. 한국 출신 촬영감독이 ASC 회원이 된 건 처음이다. 1919년 설립된 이 단체는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촬영감독이 주축이 됐다. ASC 회원이 되려면 최근 8년 중 5년 이상 촬영감독으로 활동해야 하고, 현역 또는 은퇴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 대상은 회원 투표를 거쳐 정해진다. 할리우드에 온지 10년, 이제 정 촬영감독은 할리우드 영화 현장이 남의 집 같지 않다고 했다.



슈퍼주니어-L.S.S. ‘수트 업’ 성공적 론칭

아이튠즈 톱송 12개 지역 1위

그룹 ‘슈퍼주니어’ 이복·신동·시원이 모인 새 유닛 ‘슈퍼주니어-L.S.S.(SUPER JUNIOR-L.S.S.)’가 성공적인 유닛 론칭을 알렸다.

24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22일 공개된 ‘수트 업(Suit Up)’은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홍콩, 도미니카공화국, 대만, 마카오, 파나마, 필리핀, 파라과이 등 전 세계 12개 지역 1위에 올랐다.

신곡 ‘수트 업’은 시그니처 사운드인 신스 베이스에 레이어드된 기타가 돋보이는 핑키한 분위기의 팝 댄스 곡이다. 가사에는 언제 어디서든 준비된 자세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슈퍼주니어-L.S.S.만의 포부를 담았다.

슈퍼주니어-L.S.S.는 이날 오후 8시 유튜브 원더케이 오리지널(1theK Originals) 채널의 ‘수트스텐’ 콘텐츠와 25일 엠넷(Mnet) ‘엠카운트다운’, 26일 KBS2TV ‘뮤직뱅크’에 출연해 ‘수트 업’ 무대를 선사한다.

이번 퍼포먼스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안무로 구성됐다. ‘수트 업’이라는 후렴구에 맞춰 재킷을 만드는 듯한 포인트 동작과 멤버별 매력이 돋보이는 댄스 브레이크까지 워트 넘치는 무대를 만날 수 있다.

한편 슈퍼주니어-L.S.S.는 내달 3~4일 서울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 대극장에서 단독 콘서트 ‘슈퍼주니어-L.S.S. 더 쇼 : 쓰리 가이즈(SUPER JUNIOR-L.S.S. THE SHOW : Th3ee Guys)’를 연다.

아이유·뷔, 일부러 나란히 길을 잃은 두 사람...“억압·압박 벗어나”

아이유, 신곡 ‘러브 윈스 올’ 뮤직비디오 공개

톱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이지은)가 24일 0시에 공개한 신곡 ‘러브 윈스 올(Love Wins All)’ 뮤직비디오를 통해 혐오에 대한 저항을 시적(詩的)으로 승화했다.

뮤직비디오는 아이유와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V·김태형)가 쫓아오는 혐오에 맞서 저항하다 결국 자유로워지는 과정을 그린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EDAM) 엔터테인먼트와 뮤직비디오 연출을 맡은 엄태화 감독에 따르면, 뮤직비디오 속에서 귀 안 들리는 아이유와 눈 한 쪽이 안 보이는 뷔를 집요하게 쫓는 ‘네모’는 주인공들을 향한 차별을 뜻한다. 각종 정체되지 않는 말들을 쓰는 통로가 된 스마트폰의 화면 혹은 편견·혐오의 프레임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담은 “나아가 우리 일상에서 만연한 각종 차별과 억압 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러브 윈스 올’의 사전 프로모션 콘텐츠마다 등장했던 캠퍼스가 뮤직비디오에서도 중요한 소재로 등장한다. 영상 속 시간 배경은 현재

지만, 캠퍼스가 찍히는 화면의 설정값은 폐허가 되기 전 멸종했던 세상이다. 이담은 “캠퍼스의 렌즈는 곧 사랑의 필터를 의미한다. 또한 인물들의 내적 혹은 외적인 모습을 뛰어넘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캠퍼드 속 세상에서 아이유와 뷔는 폐허가 된 현실에서처럼 지저분한 행색이 아닌 생기고 단정한 모습이다. 근사하게 차려진 맛있는 음식들을 먹는가 하면, 윤이 흐르는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공간을 당당히 누빈다. 그런 가운데 검정 옷을 입은 이들은 두 사람을 손가락질한다.

“말하지 못하는 이와 왼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이의 디스토피아 세계관 생존기’로도 해석 가능한 이번 뮤직비디오에는 여러 상징이 존재한다. 아이유의 입술을 자르며 들려오면 체인이 자게 걸려있다. 이는 곧 세상과 온전히 소통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뜻한다고 이담은 전했다. 뷔 역시 왼쪽 눈에 은전한 소통이 힘들음을 상징하는 백색의 렌즈를 착용했다.

아이유 팬덤 ‘유에나’와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 사이에서 가장 크게 화제가 된 건 두 사람이 각각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등장한 장면들이다. 아이유와 뷔는 폐허에서 각자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골라 입었다. 이담은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는 가장 상투적이라 할 수 있는 ‘사랑의 결실’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끝내 ‘네모’로 인해 육체가 소멸되고 그들이 걸치고 있던 ‘옷’만 남게 된다. 그 옷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남겼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옷더미 위로 얹힌다. 그런데 두 사람은 마지막 캠퍼드 화면에서 이들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으로 암시된다. ‘러브 윈스 올’의 노랫말인 “일부러 나란히 길 잃은 우리 두 사람”이 겹쳐지기도 한다.

이담은 “이는 온갖 억압과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음을 뜻한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드레스와 턱시도는 현실에서 의미 없이 떠오르는 것으로 형식들이 과연, 참 본질을 보여주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는 의미도 내포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디스토피아를 그린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주목받은 엄태화 감독은 이번 뮤직비디오를 통해 아이유와 약 5년 만에 재회했다. 앞서 엄 감독은 지난 2018년 아이유의 데뷔 10주년 투어 콘서트 ‘이 지금’에서 상영했던 10주년 기념 VCR를 작업했다.

엄 감독은 이번 뮤직비디오 연출 참여 계기에 대해 “아이유 씨와의 재회가 가장 결정적이었다. 2018년 이후, 5년 만의 협업이라 감회가 남달랐는데, 그때 당시에도 2년 동안 현장을 나가지 않던 중, 아이유 씨의 연락을 받고 콘서트 VCR 작업을 했던 것이 이후 재 작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됐다”고 돌아봤다.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촬영장에 대한 즐거움을 다시 일깨워주는 작업이었다. 세계관 자체가 현실과 달리 이질적이고 추상적인 설정인 만큼 뮤직비디오에 대한 여러 시각에 따른 다양한 해석들 역시 환영한다”고 했다.

‘러브 윈스 올’ 음원은 이날 오후 6시 음원플랫폼에 공개됐다.



에디킴, 5년 만에 신곡 윤종신과 함께 발매해

가수 에디킴이 프로듀서 겸 윤종신과 함께 신곡을 발표했다.

23일 소속사 미스틱스토리에 따르면, 에디킴은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원 플랫폼을 통해 ‘트랙 바이 윤: 켈잖아지겠지’(이하 ‘켈잖아지겠지’)를 발표했다.

‘트랙 바이 윤(track by YOON)’은 윤종신이 다른 아티스트들과 협업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는 프로젝트다. 그룹 ‘빌리(billie)’ 등이 참여해왔다.

‘켈잖아지겠지’는 20대 중반의 에디킴이 어쿠스틱 기타로 남겨놓은 휴대폰 음성 메시지로부터 영감을 받아 제작됐다. 레트로한 일렉트로닉 피아노와 신스 사운드가 돋보이는 R&B 발라드다.

삶에서 오는 어려움에 대해 종종 내뱉게 되는 ‘켈잖아지겠지’라는 말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에디킴은 지난 2019년 활동을 중단했다.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지인들과 돌려본 사실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가수 정준영의 단독방 멤버였던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에디킴은 이 방과 별개의 단독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으나 범행은 1회에 그쳤으며 기소유에 처분을 내렸다.

보컬 보이그룹 트렌드 될까... 엠넷 ‘빌드업 : 보컬 보이그룹 서바이벌’, 2년 활동 서포트 걸었다



엠넷(Mnet)이 4인조 보컬 보이그룹을 만든다. 장르 무관, 보컬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모두 도전할 수 있다. 새로운 기회에 아이돌 출신 보컬리스트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그룹 SG워너비 이석훈은 24일 서울 마포구 CJ ENM 1층 텔런트스튜디오에서 열린 엠넷

내일 첫 방송...4인조 보컬 보이그룹 오디션

‘빌드업 : 보컬 보이그룹 서바이벌’(‘빌드업’) 제작발표회에서 “춤이 아니라 노래만으로 보여지는 자리라 그 이상의 감독과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빌드업’은 엠넷이 새롭게 선보이는 오디션이다. 전현직 아이돌부터 연습생, 숨은 고수들 등 이력과 상관없이 도전장을 내민다. ‘슈퍼스타K’ 시리즈의 마두식 PD가 연출을 맡았다. CJ ENM과 오르카 뮤직, 지니뮤직이 공동 제작을 맡았다. 마PD는 “ 그동안 많이 봐왔던 서바이벌은 퍼포먼스 중심이었다. 100% 보컬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소리를 어떻게 담

을지를 중심으로 생각했다”며 “이름이 ‘빌드업’이다 보니 소리의 조화, 쌓아가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이들의 목소리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신경 썼다”고 했다.

보컬이 주제가 된 것은 대중의 정서를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보컬이 잠깐 트렌드에서 멀어졌을 수 있지만 보편적인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늘 듣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4인조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종 인원수를 고민했다. 결국 4명이라는 숫자가 각자의 매력이 보이고, 보이스의 조화 등 최고의 시너지를 낸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